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과제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장
swhong@kiep.go.kr

김성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부연구위원
sdavidkim@kiep.go.kr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원
jgkang@kiep.go.kr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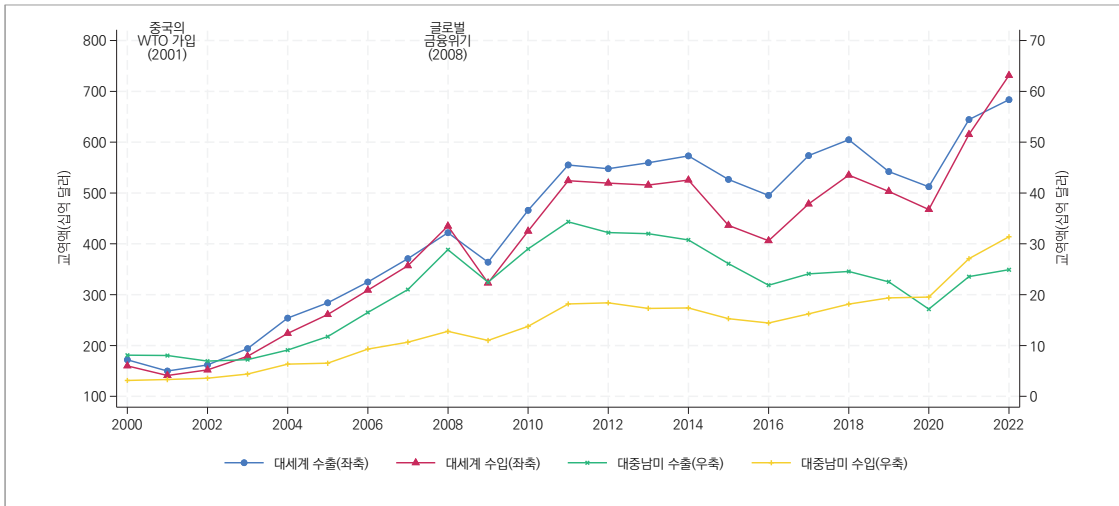
-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해 온 반면, 대중남미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한국이 대중남미 통상에서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식별할 필요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 한국의 대세계 수출 패턴과 차이를 보인 반면, 수입 패턴은 유사함.
 -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수출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는 현지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음.
- ▶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 측면에서 대중남미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은 △ 고부가가치 제품 무역 확대, △ FTA 체결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 제조 분야 대중남미 투자 확대, △ 중남미 자원·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 일본은 2020년 이후 정부간 대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수출품목 발굴에 집중하고 있음.
-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 한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감소, △ 협소한 대중남미 진출 분야 등을 꼽을 수 있음.
 - 한국기업들은 대중남미 투자 애로사항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정보 수집의 어려움, 중남미 내 과도한 행정 절차, 현지 건설사와의 경쟁, 엄격한 환경 기준, 환율 변동 등을 언급
- ▶ 단기적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 중장기적 목표로 '대중남미 수출 확대'와 '중남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제안
 - 중장기 목표인 '대중남미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대중남미 투자 확대'와 '중간재 수출 비중 확대'를 제시
 - 중장기 목표인 '중남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수출품목 다변화', '내수시장 타깃형 수출 모색', '미국과 중남미 간 경제통합 가능성 대비'를 과제로 제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경쟁 및 갈등이 전 세계 무역·통상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면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 무역·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 블록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 선거 등은 한국의 대중남미 무역에 새로운 과제를 야기함.
 -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무역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한-중미 FTA 체결 및 발효,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체결,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타결 등
- 중남미 국가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해 온 반면, 대중남미 수입은 증가 추세를 띠고 있음(그림 1 참고).
 - 특히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체결 이후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해 왔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 원인을 파악해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할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함.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무역·통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대중남미 통상에서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남미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기여할 정책 제언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함.
 -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그 목표와 과제를 시기별, 적용 대상 국가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이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입 다변화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함.

그림 1. 한국의 대세계 및 대중남미 수출입

(단위: 십억 달러)



주: 동 그림에 포함된 중남미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에콰도르임.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해 작성.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한-중남미 교역 및 투자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 한국의 대세계 수출 패턴과 차이를 보인 반면, 수입 패턴은 유사함.
 - 다만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의 수출은 타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과는 대조적으로 동 기간 감소하지 않았던 점이 특징임.
-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 수출품목은 교역 국가마다 상이하며, 한국의 대세계 수출 패턴과 다른 국가들이 관찰됨.
 - 브라질,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대한 수출의 경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으며, 그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을 상회함.
 - 반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을 하회함.

-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대내외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시기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를 규제기(1997년 이전), 자유화기(1998~2003년), 성장기(2004~15년), 조정기(2016~20년), 재도약기(2021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음.
 -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수출을 겨냥하고 있어 중남미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 온 것으로 보임.
 -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는 메르코수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아 현지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가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음.
 - SICA(중미통합체제)에 대한 투자는 태평양동맹 및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작으며, 주로 운수 및 창고업과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2) 중국과 일본의 대중남미 교역 및 투자

- 중국은 △ 고부가가치 제품 무역 확대, △ FTA 체결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 제조 분야의 대중남미 투자 확대, △ 중남미 자원·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중남미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왔음.
 - 중국-중남미 간 물류환경 개선, 신에너지차 수출 원활화, 에너지 관련 협력 채널 확대, 핵심 광물 및 전기차 투자 확대와 관련 공급망 구축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음.
- 2010년대 이후 일본의 대중남미 수출 패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2010년대 들어 중남미와의 FTA 체결과 기존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해왔고, 2020년 이후에는 정부 간 대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수출품목 발굴에 집중하고 있음.
 - 투자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대화 활용, 신규 스타트업 현지 진출 지원, 조세·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일본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중남미 외교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

- 탈중국화 및 아세안의 등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 수출이 아세안을 통한 중남미로의 수출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적어도 최근까지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 수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201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한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감소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대중남미 투자 애로사항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정보 수집의 어려움, 중남미 내 과도한 행정 절차, 현지 건설사와의 경쟁, 엄격한 환경 기준, 환율 변동 등을 꼽았음.
-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분야가 협소하다는 점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음.
 - 한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금융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에, 멕시코를 제외한 기타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는 금융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3. 정책 제언

1) 단기적 정책 목표 및 과제

- 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제안
 - [표 1]과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자원협력위원회, 고위정책협의회, 경제공동위원회 등과 같이 이미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는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여 활성화

2)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과제

-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수출 확대’를 제안하며,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대중남미 투자 확대’와 ‘중간재 수출 비중 확대’를 제시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수출이 상당한 수준의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바, ‘대중남미 투자 확대’ 대상국을 최근 10여 년간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국가로 선정
 - 대상 국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등
 - ‘중간재 수출 비중 확대’ 대상국은 중남미 해당국으로의 한국 수출 변화가 중간재 수출 변화에 좌우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보다 낮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선정
 - 대상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로 '중남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제안하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적 과제로 '수출품목 다변화'와 '내수시장 타깃형 수출 모색', 장기적 과제로 '미국과 중남미 간 경제통합 가능성 대비'를 제시
 - '수출품목 다변화' 대상국을 2010년 수출 상위 품목의 수출액 감소가 크지 않거나, 2010년 수출 상위 품목 중 3개 이상이 2022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로 선정
 - 대상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칠레, 파라과이, 페루
 - '내수시장 타깃형 수출 모색' 대상국을 인구나 GDP 규모가 전 세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국가이면서, 최종재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더불어 미국 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주목적이었던 국가도 포함함으로써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미국 시장과 내수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대상 국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미국과 중남미 간 경제통합 확대는 현재 미국 수출시장을 겨냥한 교두보로서 멕시코가 갖는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긍정적일 수 있음.
 - 또한 [표 3]에 따르면 2018년 수준에서 미·중 보복관세(시나리오 ①) 분석 결과와 비교해 시나리오 ③과 ④하에서 한국의 총 후생이 개선된다는 점은 미국과 중남미 간 경제통합 증대가 한국에 부정적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함.
 - '미국과 중남미 간 경제통합 가능성 대비'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로 중미 일부 국가를 선정하였는데, 중미 국가는 미·중 갈등 심화 국면에서 미국과의 경제통합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으며, 미국도 이들과의 경제통합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중미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멕시코에 집중되었던 니어쇼어링의 혜택을 분산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FTA(CAFTA-DR)를 체결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미국과 근접해 있어 미국과의 경제통합 수준을 높일 유인이 존재
 - 2024년 3월에 발의되었던 미국의 「Americas Act」, 중남미로의 중국 진출 확대 등을 고려하면 미국도 중미 국가에 대한 경제적 포용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대상 국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KIEP**

표 1. 한-중남미 제도적 통상협력 기반 구축 현황(1)

국가	자원협정/(산업)자원협력위원회	고위정책협의회(설립)	이중과세방지협정(발효)
브라질	○ / ○	○(1997)	1991.11.(2018. 1. 개정)
멕시코	○ / ○	○(1996)	1995. 2.
베네수엘라	○ / ○	-	2007. 1.
칠레	○ / ○	○(1998)	2003. 7.
아르헨티나	○ / ○	○	-
에콰도르	○ / ○	○(2008)	2013. 10.
페루	○ / ○	○(2006)	2014. 3.
볼리비아	-	-	-
트리니다드토바고	-	○(2014)	-
콜롬비아	○ / ○	○(2012)	2014. 7.
파라과이	-	-	-
우루과이	-	-	2013. 1.
과테말라	-	○	-
도미니카공화국	-	설립 양해각서 체결(2013)	-
엘살바도르	-	○(2010)	-
온두라스	-	○(2017)	-
파나마	-	○(2013)	2012. 4.
자메이카	-	-	-
코스타리카	-	○(2007)	-
니카라과	-	○(2013)	-
가이아나	-	-	-

주: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24년 7월 기준임.

자료: 외교부, 「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2024.7. 기준)」(검색일: 2024. 10. 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 한-중남미 제도적 통상협력 기반 구축 현황(2)

국가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경제·과학·기술·무역 분야 협력협정(발효)	과학기술 협력협정(발효)
브라질	○	-	1992. 12.
멕시코	○	1990. 8.	-
베네수엘라	-	-	1994. 8.
칠레	○	1983. 12.	1996. 7.
아르헨티나	○	2006. 10.	2003. 2.
에콰도르	○	1983. 12.	-
페루	○	1984. 7.	-
볼리비아	○	1986. 11.	-
트리니다드토바고	-	1987. 10.	-
콜롬비아	(FTA) 공동위	-	1982. 2.
파라과이	○	-	1977. 12.
우루과이	○	1987. 11.	-
과테말라	-	-	-
도미니카공화국	-	-	1982. 11.
엘살바도르	-	-	-
온두라스	-	2010. 7.	-
파나마	-	-	2011. 2.(2016. 2. 종료)
자메이카	○	1982. 7.	-
코스타리카	-	-	1981. 9.
니카라과	-	-	-
가이아나	-	1973. 3.	-
바베이도스	-	1981. 9.	-
수리남	○	1982. 8.	-
아이티	-	1985. 3.	-
벨리즈	-	1987. 9.	-

주: 경제·과학·기술·무역 분야 협력협정은 2024년 1월 기준, 과학기술 협력협정은 2024년 1월 기준임.
 자료: 외교부, 「우리나라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현황(2024.1 기준)」(검색일: 2024. 10. 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 시나리오별 한국의 후생 변화

시나리오	총 후생변화	교역조건으로 인한 후생변화	교역량으로 인한 후생변화	실질임금
시나리오 ①	-0.198%	-0.205%	0.006%	-0.736%
시나리오 ②	-0.191%	-0.203%	0.012%	-0.733%
시나리오 ③	-0.178%	-0.206%	0.028%	-0.737%
시나리오 ④	-0.171%	-0.204%	0.033%	-0.734%
시나리오 ⑤	-0.193%	-0.203%	0.009%	-0.731%

주: 1) 시나리오별 결과는 2014년 결과와 비교해 계산된 변화율을 의미하며, 2014년은 미국과 중국 간 보복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시점임.
 2) 시나리오 ①: 2018년 미·중 보복관세, 시나리오 ②: 시나리오 ①+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관세 증가, 시나리오 ③: 시나리오 ①+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시장 개방, 시나리오 ④: 시나리오 ①+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시장 개방+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관세 증가, 시나리오 ⑤: 시나리오 ①의 심화.

표 4. 정책 목표 및 정책과제 분류: 시기별, 대상국별

시기	목표	과제	중남미 대상국
단기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	-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중기	대중남미 수출 확대	과제 1. 대중남미 투자 확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과제 2. 중간재 수출 비중 확대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중남미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과제 2. 수출품목 다변화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칠레, 파라과이, 페루
장기	중남미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과제 3. 내수시장 타깃형 수출 모색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과제 1. 미국과 중남미 간 경제통합 가능성 대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